

함께 푸는 미스터리<12> 해답

“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가 에드가 앤런 포의 ‘도둑맞은 편지’에서 진정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소. 이 작품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광경이기 때문에 증거를 지나쳐 버렸다는 일을 기억하시겠지요?” 최교수는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었다.

“이 사진들을 한장 한장 뚫어 보면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 인물이 한사람 있는데 이 인물은 어떤 장면에서도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

장례식의 살인사건

의 사진을 쳐들었을 때 미소로 번졌다. 그 사진에는 하관되는 광경을 배경으로 마정숙씨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. 최교수는 입을 열었다.

“이것이 증거입니다. 앞의 사진

윤치달씨는 사진의 증거를 들이대자
울면서 고백했다. 그의 살인방법과 동기는
최교수가 추측한 그대로였다.

는 것을 알게 됩니다.”

최교수는 경찰이 찍은 사진 한장을 쳐들었는데 허방씨가 그의 처인 마정숙씨와 박순애씨 뒤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.

“없어진 사람은 바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입니다. 예를 들면 이 사진으로 보아 우리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주요한 관객들과 함께 서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.”

최교수의 얼굴표정은 다른 한장

에서 마정숙씨는 무덤저쪽에 있었읍니다. 그 것은 이 배경으로 보아 알 수 있읍니다. 이것은 곧 우리가 현재 다른 사진과는 반대방향인 군중이 많이 모인 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마정숙씨의 뒤쪽 1.2m나 1.5m 거리에 서 있었읍니다. 그곳은 바로 허방씨가 충격을 받은 때인 불꽃놀이중 허방씨의 바로 뒤쪽입니다. 이 사진을 찍은 사

람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윤치달씨입니다.”

마지막으로 최교수는 또 한장의 사진을 쳐들었다. 윤치달씨가 찍은 마지막 사진인데 허방씨의 시체와 충격을 받은 마정숙씨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.

“이것은 다시 군중속에서 찍은 것입니다. 윤치달씨는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 간 것입니다. 이 사진과 전사진간의 찍은 시간 간격은 불과 수초였으니깐요. 그는 허방씨의 등에 대고 4발을 쐈던 것입니다.”

최교수는 성동근씨가 윤치달씨를 고용하여 허방씨를 죽여서 허방씨의 자리를 인수할 생각이었다고 추정했다. 윤치달씨의 사진촬영으로 성동근씨의 움직임을 카메라할 수 있게 되었다.

그러나 윤치달씨는 누군가 그의 사진을 보고 그가 어디에 서있었다는 것을 찾아 내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. 성동근씨는 바로 살인사건이 일어 나던 순간 장총경 옆에 서 있다는 깨뜨릴 수 없는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기를 바랬다.

최교수의 추측은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. 윤치달씨는 사진의 증거를 들이대자 울면서 고백했다. 그 방법과 동기는 바로 최교수가 추론한 바로 그대로였다. ST